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

‘녹차수도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茶)의 약속, 보성다향대축제 본격 추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茶) 문화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과 보성차밭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성군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이번 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녹차수도 보성’의 진면목을 선보일 계획이다.

▲ 보성다향대축제, 대한민국 대표 차(茶)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보성다향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 유망축제’로 선정되며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해 1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보성다향대축제는 차의 본고장 보성에서 차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보성에서 피어나는 천년 차의 약속’을 주제로,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차를 매개로 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성차생산자조합이 주최하고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

제는 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차(茶) 축제의 모든 것

군은 올해 축제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방문객들은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차의 가치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차잎 따기와 차 만들기 △보성티마스터컵‘보성 차(茶)음료 개발 대회’ △오후의 차밭‘그랜드 티파티’ △보성에(愛)물들다(茶) ‘보성 차(茶) 이색 체험’ △녹차 치유(테라피)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핵심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콘텐츠를 확대해 ‘녹차수도 보성’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새 콘텐츠는 △축제 글로벌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카마탄 페스티벌 교류 행사 및 공연 △스타 영양사가 만든 녹돈까스,



녹차부리도 등 보성 특화 먹거리 부스 등 △보성 차 도구 유물 전시회 △관내 차 생산업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간 B2B 상담 프로그램 및 라이브커머스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키즈 놀이터 △관광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트램카 등이 있다.

▲ 관광객 안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
군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 문화 행사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며 보성 차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보성/김문기 기자



곡성군, 민원 친절 교육으로 소통의 질 높인다 ‘마음소통 콘서트’로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곡성군은 지난 13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 친절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연 형식을 벗어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읍·면의 민원 담당 직원들이 모여 음악과 함께 마음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은 직원들이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민원인과의 소통에 필요한 태도와 언어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곡성군수와 함께 진행된 ‘마음소통 콘서트’였다. 곡성군수는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곡성군수는 민원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새로 임용된 민원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민원 담당자들은 “이전에는 민원 응대에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민원인을 더 이해할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또, “군수님과 대화에서 민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매우 유익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곡성군수는 “이번 민원 친절 교육을 통해 군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민원 응대에 있어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 군의 얼굴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대상

으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 인정책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가구소득 인정책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

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댕댕이와 함께하는 순천일기’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전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총 35팀 이내로 모집한다. 각 팀은 최대 4인과 반려견 2마리까지 참여할 수 있다.

순천시, ‘댕댕이와 함께하는 순천일기’ 참가자 모집

최종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순천에서 숙박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숙박과 체험비를 지원하며, 참가자들은 순천의 숙박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여행

을 경험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경험을 SNS에 공유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여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여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seojiwon7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컨셉과 홍보 방법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5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순천시 관광과(061-749-581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천/정영인 기자

구례군 매천도서관, ‘2025년 구례 매천아카데미’ 강좌 시작

구례군 매천도서관은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5년 구례 매천아카데미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례 매천아카데미는 ‘글쓰기의 기초’와 ‘북내레이터와 함께하는 마음 치유 낭독법’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별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 ‘글쓰기의 기초’는 정지아 작가가 지도로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매천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만 14세 이상 구례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글쓰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학적 소양을 키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 ‘북내레이터와 함께

하는 마음 치유 낭독법’은 윤해자 강사가 지도하고 2025년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책을 읽으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마음 치유 낭독을 주제로 하며, 참가자들은 독서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매천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매천도서관(☎ 061-780-8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 매천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매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구례군민들이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은 연접 지역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군은 먼저 4월 예정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3월 15일로 앞당겨 오는 20일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접종대상은 소·돼지 등 모든 우제류이며 1,679농가 68,400두다.

장흥군, 구제역 청정지역 지키기 총력 대응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 앞당겨 이달 20일까지 완료

100두 이하 소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통해 접종 지원하고, 100두 초과 사육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16일 열린 구제역 긴급 대책회의에서

는 각 분야별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모색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4톤을 긴급 공급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일제 접종이 완료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누락된 개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차단될 때까지 관내 축산시설 및 우제류 농가에 대해 군 방역차량 2대, 농림부 차량 4대와 함께 장흥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8대를 동원해 일제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장흥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훨씬 사람을 만났고 기억이 많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내고 있다는 것과
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이들
우어도 보는 것.
나를 기어갈 것.
잠시
리우고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